



Not Rated

스몰캡/비상장 Analyst 오현진
ohj2956@kiwoom.com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IOT 센서



'늘 케어' 조감도 모니터링 화면



비상장 기업 리포트

제론엑스 (비상장)

시니어 산업 성장 선도할 AI 디지털 케어 업체



동사는 AI 디지털 케어 플랫폼 서비스 업체로, 자체 개발 디바이스 '늘 밴드'와 IoT 센서 '늘 허브', 모바일 기반의 돌봄 솔루션 '늘 케어 앱'을 포함한 돌봄 플랫폼 '늘 케어(NEUL Care)'를 서비스. 시니어 케어 서비스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동사는 시니어 케어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으며, EMR 업체, 금융사 등과 협업 체계 구축에 따라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는 판단

>>> AI 디지털 케어 플랫폼 서비스 업체

AI 기술 기반으로 시니어의 낙상, 급작사 등의 위험 예측을 가능케 해 사고 예방을 돋는 돌봄 플랫폼 '늘 케어(NEUL Care)'가 동사의 주요 서비스이다. 바이탈 데이터 모니터링 및 알고리즘 개발에 최적화된 자체 개발 디바이스 '늘 밴드'와 IoT 센서인 '늘 허브'가 있으며, 모바일 기반의 돌봄 솔루션 '늘 케어 앱'도 출시했다. 사업 부문은 플랫폼 서비스 사업 부문 및 플랫폼 구축 사업 부문, 정부과제 전략 컨설팅 부문으로 구분된다.

상장사 비투엔의 실버케어 사업부가 독립해 설립되었으며, 자산 및 특허를 인수해옴으로써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는 판단이다. 최근 중앙보훈병원과 '늘 케어' 서비스를 오픈했으며, 금융 그룹 등과 협력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 초고령화 사회 진입, 시니어 산업 성장에 집중

동사는 다른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들과 다르게, 시니어 케어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5년 노인인구 비율은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 증가에도 부족한 시설 인프라 및 돌봄 인력 문제는 시니어 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대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요양산업 진출이 본격화되는 점도 주목한다. 시니어 케어 시장 선점을 위해 주거 관련 분야 중심으로 성장이 진행 중이며, 향후 보험사 등의 금융권 중심으로 사고 예방과 서비스 질 향상에 시장 성장의 초점이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 인력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이 가능한 동사의 케어 플랫폼을 통해 관련 업계와 협업을 진행 중이며, 관련 성과에 따라 향후 시장 성장에 대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 시장 선점 통한 수혜 집중 전망

동사가 KAIST와 공동 개발한 디바이스 기술력(측정 주기 및 배터리 등), 이를 통한 AI 위험 예측 알고리즘 고도화, 구체화된 사업 전략이 동사의 경쟁력이라 판단한다. 사업 고도화를 위해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 및 금융사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 중인 점도 시장 내 동사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니어 케어 시장 성장에 따른 동사의 행보를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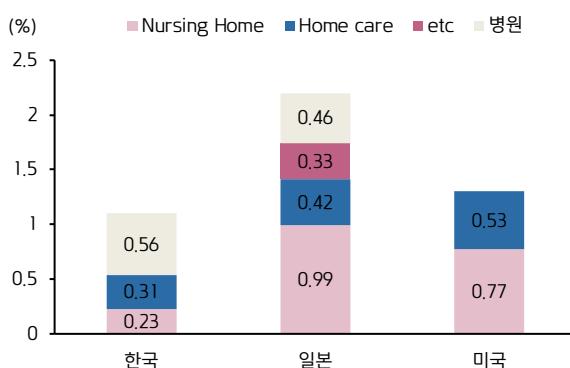
시니어 케어 산업: 금융사 진출 통한 성장 본격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국내 시니어 케어 시장의 성장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시니어 케어란, 노인에게 가정이나 시설에서 신체 가사 활동 지원 및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시니어 케어 시장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했으나, 현재 장기요양보험 수급은 노인인구의 10%에 불과해 새로운 민간 요양시설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비급여 시장의 신규 시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에 따른 공적 급여 시장 중심의 시니어 케어 시장은 22년 기준 약 14조원이지만, 개인친화형 신규 돌봄 시장 규모는 약 87조원으로 파악된다.

다만, 아직 롱텀케어(LTC)에 대한 국내 금융 소비자의 인식은 글로벌 대비 미흡하다. 병원을 제외한 LTC에 대한 GDP 지출 비율을 보면, 한국은 0.54%로 일본의 1.41%와 미국의 1.3% 대비 저조하다. 질병에 대한 치료 등에 집중하는 문화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요양 등에 대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비급여 신규 요양 시장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만큼 금융 보험 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한 신규 서비스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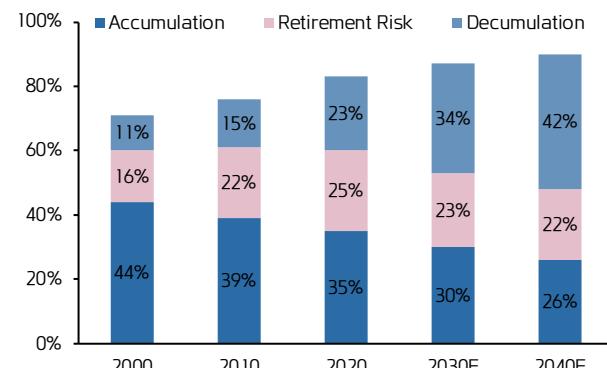
이에 금융권도 신규 금융 보험 산업 성장을 위한 요양산업의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진출 중이다. 삼성생명은 23년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를 시사했으며, 신한 그룹도 노인 복지시설 및 은퇴 빌리지 조성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NH농협생명도 요양 산업 진출을 준비 중이다.

LTC(롱텀케어)에 대한 GDP 지출 비율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2023), 제론엑스, 키움증권

한국 금융 소비자 그룹 전망



자료: 통계청, 제론엑스, 키움증권

Retirement Risk Zone에서의 금융소비자 단계별 의사결정/행동



자료: 제론엑스, 키움증권

사업전략: 신규 비급여 시장 접근



자료: 제론엑스, 키움증권

동사 서비스 경쟁력 및 사업 전망

AI 기술 기반으로 시니어의 낙상, 급작사 등의 위험 예측을 가능케 해 사고 예방을 돋는 돌봄 플랫폼 ‘늘 케어(NEUL Care)’가 동사의 주요 서비스이다. 바이탈 데이터 모니터링 및 알고리즘 개발에 최적화된 자체 개발 디바이스 ‘늘 밴드’와 IoT 센서인 ‘늘 허브’가 있으며, 모바일 기반의 돌봄 솔루션 ‘늘 케어 앱’도 출시했다. 사업 부문은 플랫폼 서비스 사업 부문 및 플랫폼 구축 사업 부문, 정부과제 전략 컨설팅 부문으로 구분된다.

특히 ‘늘 밴드’와 ‘늘 허브’는 동사가 KAIST와 공동 개발하였으며, 최대 7일간 유지되는 배터리와 짧은 측정 주기 등의 특성으로 시니어 사용성 뿐 아니라 의료진 등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실시간 측정 바이탈 데이터를 통한 AI 알고리즘 개발에도 최적화되어 위험 예측 알고리즘 고도화도 가능하다.

동사의 AI 알고리즘은 실시간 바이탈 데이터 및 EMR 기반 위험도를 분류하며, 이를 통한 위험 예측 시스템 기술은 특허를 보유 중이다.

상장사 비투엔의 실버케어 사업부가 독립해 설립되었으며, 자산 및 특허를 인수해옴으로써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는 판단이다. 최근 중앙보훈병원과 ‘늘 케어’ 서비스를 오픈했으며, 사업 고도화를 위해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 및 금융사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 중인 점도 시장 내 동사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니어 케어 시장 성장에 따른 동사의 행보를 주목한다.

제론엑스 Vision



자료: 제론엑스, 키움증권

제론엑스 AI 디지털 케어 플랫폼 서비스



자료: 제론엑스, 키움증권

제론엑스 서비스 플랫폼 구성

**늘케어플랫폼
(for 의료진, 관리자)**

통합 데이터 및 AI 분석 플랫폼

현재 위치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 실시간 측정 바이탈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 AI 알고리즘 기반 위험 예측 환자 분류
 - 실시간 측정 바이탈데이터, EMR 과거 병력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
- 다양한 디바이스/센서 연동 가능한 오픈 플랫폼
- 요양시설 설계도 기반 디지털 트윈 관제 시스템 지원

**늘케어 App
(for 의료진, 보호자, 간병인)**

모바일 기반 환자 돌봄 및 소통

보호자 App 의료진 App

- PC 환경과 동일한 기능을 모바일 App에서 확인 가능
- 보호자는 입소자의 건강 상태 확인 및 의료진 소통 가능
- 시니어 스마트폰에 App 설치 만으로 홈 케어 가능 (App이 통신 허브 기능을 대체)

**늘밴드 & 늘허브
(for 시니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IoT 센서

늘 밴드 & 늘 허브

- 자체 개발 디바이스/허브 (KAIST 공동개발)
 - (AI 알고리즘 개발에 최적화 기기 자체 개발, 상용 디바이스 연동)
- 바이탈 데이터 모니터링 & 플랫폼 전송 후 분석
 - (체온, 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 호흡수, 걸음 수, 스트레스 지수)
- 측정주기(10분) / 배터리(1주일/7일) / 충전(2시간)
- 사용자 SOS 버튼으로 긴급 대응 가능

자료: 제론엑스, 키움증권

제론엑스 기술 로드맵

기술 로드맵	현재 단계	2025.1Q	2025.2Q	2026.1Q	최종 목표
디바이스 영역 	체온, 심박도 측정 정확도 검증 완료 (의료기기 수준 정확도)	호흡수 측정 정확도 검증 완료 (의료기기 수준 정확도)	산소포화도 측정 정확도 검증 완료 (의료기기 수준 정확도)	혈압 측정 정확도 검증 완료 (의료기기 수준 정확도)	의료기기 인증 완료 바이탈 정확도 향상
알고리즘 영역 	EMR 데이터 기반 낙상, 심근경색 알고리즘 검증 완료	수면시간 탐지 알고리즘 개발 완료 정확도 검증 및 적용	육창 방지 알고리즘 개발 완료 정확도 검증 및 적용	실시간 바이탈 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 알고리즘 고도화	실제 돌봄 업무 적용 가능한 AI 알고리즘 증가 및 적용 확대
데이터플랫폼 영역 	낙상 감지 센서 및 적외선 레이더 센서 데이터 연동	상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계 및 데이터 연동	산업 안전 돌봄 서비스 출시 사업 영역 확대	키즈돌봄 서비스 개발 완료 / 서비스 검증	다양한 디바이스 연계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서비스 영역 	금융권 요양 사업 모델				노인 돌봄을 넘어 안전 돌봄 키즈 돌봄 영역 서비스 확대

자료: 제론엑스,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30일 현재 '제론엑스'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입	적용기준(6개월)	업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주가 상승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23/10/01~2024/09/30)

매수	중립	매도
94.87%	5.13%	0.00%